

발전노조 홈페이지 용원의 글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발전노조 성명서 17,000회 조회수 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16일에 발전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조치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발전노조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점과 고용문제에 대해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전력산업의 파행으로부터 이득을 취해 온 자들과 그 부역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면서 "우리 발전노동자들 또한 현장 실무와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4287	감동의 성명서	정나래	2017-05-17	5
4286	깨어 있는 노조네요~!!	쿠니맘	2017-05-17	14
4285	감사합니다	시민	2017-05-17	5
4284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Cbug	2017-05-17	13
4283	응원합니다.	아저씨	2017-05-17	6
4282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희망한국	2017-05-17	8
4281	적극 지지합니다.	불운실자군	2017-05-17	8
4280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수원시민	2017-05-17	17
4279	적극 지지합니다.	김상현	2017-05-17	10
4278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민	2017-05-17	16
4277	적극 지지합니다.	보리	2017-05-17	15

목록 << 첫 페이지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끝 페이지 >> 쓰기

발전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 성명서를 접한 네티즌들은 발전노조에 일제의 용원의 글을 남기고 있다. 발전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응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뜻깊은 성명서에 감동했습니다.", "눈물나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노조 성명서 읽는것도 처음인데 참 감동이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발전노조를 향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 폐지, 그럼 고용은?

석탄화력 폐지에 대해 발전노조의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나가자, 회사와 기업별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사석에서 "일자리 없어지는 것에 대해 발전노조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석탄화력의 일시적 셧다운이 당장 발전노동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석탄화력의 축소·폐쇄는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한 발전노동자는 후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일자리만을 걱정하는 것은 대의가 아니다.

발전노조, 석탄화력 연구보고서 발간

발전노조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2017년 3월 발간)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함께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 발전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란 모두가 행복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

석탄화력 폐쇄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개발이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이 자금이다. 민간이 먼저 내놓을리 없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는 우리 발전노동자뿐이다.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정부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비중 축소는 옳은 길이기도 하다.

내 밥그릇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뻘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발전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끝>

